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3월 13일(금)
..(음력 2월 19일)..

Пятница

13 марта 2020г.

№ 10(11687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지난 8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크리스탈> 스포츠회관에서 제3회 <조국의 아침> 러시아 TV다부작 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러시아 유명 배우들과 감독, 가수 등이 이날 무대에 올라 사할린에 대한 매력을 이야기하고 섬지역에 대한 사랑고백도 하였다. 개막식에 모인 1000여 명의 관객들을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가 환영하며 특히 3·8절(세계의 여성의 날)에 개막하게 되면서 이날 여성들에게 행복을 빌었다.

3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경쟁프로그램에는 11편의 작품이 올랐고 사할린 주민들에게 주최 측에서는 장편 영화의 초연작들로 <한 숲>, <봉지 속 행복> 등 작품의 관람을 추천하고 있다.

축제 일환으로 다양한 공연, 마스터클래스, 감독·배우들과의 만남 등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TV영화축제는 사할린주 정부,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부, 디지털 개발부, 러시아 통신 및 대중적 소통, 러시아 문화부, <국민 기획>이 주최로 이뤄진다.

제3회 <조국의 아침> 축제 폐막식은 오는 14일(일) <크리스탈> 회관에서 열린다.

▲ 3월 8일 있는 영화제 개막식에서.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모스크바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

사할린주가 모스크바국제관광박람회(MITT)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3월 17일-19일까지 제27회 러시아 대규모 관광대회가 모스크바의 <크로커스 엑스포>에서 열린다. 박람회장의 면적은 3만5천m²로 전 세계의 관광업체들이 발표회를 갖는다.

사할린주의 대표단은 '아드레날린'·'비토모'·'아미스트'·'드림'·'기드로스트로이 투르'·'오메가 플러스' 여행사들, 그리고 '고르니 워스두흐' 종합 스포츠단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사할린 관광청의 청장 나탈리아 피흘코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이 세계적인 관광의 흐름에 수정을 가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관광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서 이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위한 박람회는 고객과 파트너 유치를 위한 중요한 행사 중 하나다. 우리 여행 설계자들은 사할린 관광 및 정보센터의 지원으로 몇 년 동안 이 행사에 참가해 오고 있다."고 표명했다.

사할린의 대표단은 사할린의 여름과 겨울의 관광상품과 사할린의 관광의 잠재력에 대한 발표물을 준비하고 사할린에서 열리는 제 2회 극동의 관광 주간을 마련했다고 주 정보 홍보실이 전했다.

'승리의 릴레이' 상징 사할린에 도착

사할린이 <승리의 릴레이>에 참가해 국제 행사의 상징인 국경 초소의 기둥 모형이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카에서 사할린에 도착했다. 캡슐 전달 기념식은 3월 10일 <승리>종합 역사 기념 박물관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조국전쟁 참전 원로들과 사할린주 러시아 연방 보안국 국경수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행사의 개막을 알렸다.

<승리의 릴레이>는 2월 5일 브레스트와 무르만스크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러시아 국경을 따라 두 개의 노선을 곧장 지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의 외곽 지역을 통과했다. 대조국전쟁의 참혹했던 전투지를 방문하고 이어지는 여정은 약 7만Km

에 이른다. 도시들에서 릴레이 중 용맹에 대한 강좌, 만남, 기념 모임도 조성됐다. 행사의 상징인 국경 초소의 기둥 모형이 무르만스크에서 출발, 북쪽 길을 통과해 모스크바와 아나디리,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를 지나 사할린에 도착했다. 3월 11일에는 '승리의 릴레이'를 네벨스크에서 맞이했고 그다음 훌스크, 코르사코브와 오조르스코예에서 맞이한다. 3월 15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돌아오며 이날 하루 동안 국제 행사의 상징을 위한 날로 <승리>종합역사기념 박물관에서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다.

3월 16일 승리의 상징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여 여정을 이어간다. 5월 28일에는 모스크바 파클론야산에서 국제 행사는 종료된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단신

블라지미르 산기, 85주년 기념 행사 개최

지난 12일(목)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님프작가 블라지미르 산기의 85세를 맞아 님프 문화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정오 12시에는 <시인, 작가, 화가. 블라지미르 산기 85주년 맞아>라는 주제로 전시회 개막과 블라지미르 산기 작가와의 만남이 있었다.

님프 문화의 날 프로그램은 아동 상호활동 프로그램, 블라지미르 산기의 님프동화 책 낭독(북트레일러 상영), <님프 무늬>(유리에 그림)활동교실, <'으흐' 신화의 사람. 블라지미르 산기>다큐멘터리 상영, 민속문화양상블 <'으흐' 신화의 사람들(사할린 사람들)>의 공연, <님프들의 목소리>다큐멘터리 상영으로 구성되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코로나19' 한국 돕기 나서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대한민국에 발생한 신종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전염병과의 투쟁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3월 11일 발표했다.

모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하나는 주한인협회 계좌에 송금, 또는 한인문화센터(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미라 거리 83A)에 비치된 모금함에 직접 기부할 수 있다.

사할린 한인 협회 계좌:

R/c 40703810950340109084
БИК 040813608
K/c30101810600000000608
ИНН 6501015979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банк ПАО «Сбербанк»
г. Хабаровск

박순옥 회장에 따르면 3월 11일 모금 발표한 당일에 이미 주한인협회 통장에 5만 루블리가 입금되었다고 전했다.

사할린주 사회감독위원회의 새 구성원 조직

3월6일 러시아 연방의 14개 지방 행정구역에서 강제 구금 장소의 인권 집행을 감독하는 사회 감독위원회의 구성 절차가 완료되었다.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사회단체들로부터 서류가 접수되었다. 러시아 연방 사회원에서도 같은 시기에 후보들의 195개의 지원서가 도착했다. 이 중 161개의 지원서가 법률상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회감독위원회 회원 후보는 러시아 연방 사회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사할린주 사회감독위원으로 7명이 선정되었는데 그중 사할린주 사회원 블라지미르 이콘니코프 의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포함되었다.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논의

지난 9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 운영위원 18명 외에 일반 동포 70여 명이 찾아왔다. 긴급 회의의 주요 의제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것이었다.

이 문제로 주요 발언을 한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번에 국회에서 소개된 대안은 전해철·김동철·윤상현 의원이 3건의 법안을 통합하여 조정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외통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의 빠른 추진은 작년 8월 초에 국회 외교통위 대표단(단장 윤상현 위원장)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8월 4일 이른 아침에 약 300명의 사할린 동포와 간담회를 가진 결과와 아나가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박순옥 회장은 한편으로 10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에 외교통위에서 의결되고 법적 검토를 받은 후 국회 본회에 오를 가능성에 높다는 것에 대해 기쁘다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안에 사할린 잔류 동포들에 대한 사항이 많이 빠졌다고 아쉬워했다. 박 회장은 자세히 대안을 소개했다. (대안은 본지 2020년 3월 6일 호 3면에 게재됨)

현재 사할린 한인 중에서 가장 이슈된 법안의 사항은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이다. 많은 사람들은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이미 2021년부터 이 사업이 발효되었다는 헛소문마저 돌고 있다.

법안과 관련하여 박순옥 회장은 "우리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두 번째 국적이 아니라 양 국가(러시아와 한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사할린 동포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주귀국을 한 동포들은 두 번째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법에 따라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국민으로서 행동하고 있다.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주한인협회는 모스크바 변호사 협회와 협정을 체결하고 이중국적 허용 문제로 협력하려고 한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련하여 이날 회의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김홍지 고문,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이수진 명예회장, 사할린주한인여성회 김혜철 회장, 고영순 마카로브 한인회장, 립종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장, 이채인 2세대 동포 등이 발언했다.

김홍지 고문과 이수진 명예회장은 2015년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여러 건이 만들어

졌는데 계속 통과에 실패했다며 초기부터 이 법안들의 추진을 지켜오고 협력했다고 했다. 김홍지 고문은 영주귀국 사업 시작 배경을 상기시키며 전해철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수진 이산가족협회 명예회장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특별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정을 얼마든지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작년에 특별법안에 대한 사할린 동포들의 제안을 수집, 수정한 그룹의 단장인 이채인 씨는 이날 사할린 한인 동포의 운명과 역울함에 토로했다.

발언자들은 주로 특별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매우 좋아하고 사할린 잔류 한인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했다. 이날 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수정한 후 한국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에 이미 사망한 사할린 강제징용 동원자들의 자녀(2세)도 영주귀국 대상으로 해야 하는 사항도 추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할린주한인협회 측에서도

공감했다. 그리고 역사회복을 위해 사할린 잔류 동포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발언자들이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반인 일부는 영주귀국자들의 동반가족(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을 빨리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며 왜 아들(또는 딸) 하나(배우자 포함)만 데려갈 수 있는지, 다른 형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사할린 동포 중에서 누군가 이미 동반가족(직계비속)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에 사할린주 한인협회 측에서는 "법안도 아직 통과하지 않았고 명단을 만들려면 주한인협회만이 이 작업을 맡을 수 있다. 개인정보 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헛소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언론사들 또한 이번 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전하고 있다. (3면에 연합뉴스 기사 게재)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 비영리 사회단체들 2020년 대통령 장려금으로 두 배 이상의 지원 받다

대통령 장려금 16,793,847루블리가 사할린의 11개 사회적 주요 기획에 사용될 전망이다.

3월5일 사할린주 사회원에서 사할린의 대통령 장려금 획득 경연 우승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2019년 말 87개 사회단체들이 대통령 장려금 요청을 신청했다. 이 중 11개의 다양한 단체들의 사회적 주요 기획들이 선정되어 총 16,793,847루블리를 받게 되었다."고 블라지미르 이콘니코브 사할린주 사회원 의장이 설명했다.

작년에 참가한 단체는 몇 배나 적은 가운데 18개 사회단체가 참가해 6개 단체가 선정되어 대통령 장려금 지원으로 총 700만 루블리를 받았다.

만남에서는 러시아 전체 상황을 제시하는 자료들이 발표되었다. 대통령 장려금 요청에 전국 지역의 비영리단체들이 지원했다. 총 7946개의 사회단체들로부터 9308개의 기획이 접수되었다. 2017년에 비영리 사회단체들에게 제공된 지원은 총 40억9200만 루블리였다.

Сахалин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в 2020 году получают в два раза больше денег от президента

16 миллионов 793 тысячи 847 рублей — столько потратит фонд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на 11 социально важн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5 марта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е региона прошла встреча с островными победителями конкурса.

— В конце 2019 года 87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 Из них выиграли 11 социально важных проектов разли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 общую сумму 16 миллионов 793 тысячи 847 рублей.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участников было в разы меньше — 18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КО, из них 6 получили поддержку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на общую сумму чуть более 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встрече прозвучали данные, позволяющие представить картину в целом по России.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е гранты претендовали НКО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оступили 9308 проектов от 7946 организаций. Поддержку получили 2017 НКО, им предоставлены гранты на общую сумму 4 миллиарда 92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사할린 여성들의 대부분 혼인 연령 25세-29세

사할린주 전체 인구 분포 중 여성의 비율은 51.8%에 해당됐다. 평균 연령은 41.2세로 남성보다 4.9세 많고 전 러시아 여성의 평균 연령은 42.4세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1000명당 1074명(전러시아 연방에서는 남성 1000명당 여성 1155명)이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28세로 여성의 출산율은 출산할 수 있는 여성 1명당 1.9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혼인 연령은 25세-29세로 도심지역은 지방 농촌지역보다 7.5세나 많다.

남성에 비해 여성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40대 이상으로 도심과 농촌지역도 같은 수치다.

40세-50세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3% 많고, 50세-60세는 12.1% 많다.

인구 통계별 연령층이 높을수록 여성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여성 비율은 66.6%를 차지했다. 100세 이상을 누린 여성은 13명으로 지방 마을에서 4명, 도심에서 9명에 해당됐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훨씬 높아 여성은 75.5세이고 남성은 64.6세이다.

여성은 경제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여성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업종으로는 보건, 교육, 숙박 및 요식업, 회계업무, 공공 및 사회 서비스를 대표하는 사업 등이다. 판매, 숙박 요식업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1.7배 높고 보건 분야에서는 5.7배, 교육 분야에서는 5.4배로 남성보다 높았다. 사할린주의 여성들은 경제 주요 분야에서 남성의 교육 수준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의 고등교육률은 34%이고, 남성은 21%이다. 중등 직업교육률은 여성이 30%, 남성은 24%이다. 그럼에도 여성의 취업률은 61%이고 남성은 70%이다. 등록된 여성의 실업률은 48.9%에 해당한다고 사할린 통계청이 밝혔다.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женщин выходят замуж в 25-29 л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удельный вес женщин составил 51,8%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жителей.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 41,2 года, это на 4,9 года больше, чем у мужчин, по России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женщин — 42,4. На 1000 мужчин приходится 1074 женщины (в РФ — 1155 женщин).

Суммар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й среднюю рождаемость на одну женщину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возраста, сложился на уровне 1,9 человека.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матери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составляет 28 лет.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женщин вступают в брак в возрасте 25-29 лет. Причем в городской местности их больше в 7,5 раза, чем в селе. А преобладание же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д мужским наблюдается в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40 лет и старше, как в городе, так и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В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от 40 до 50 лет женщин больше на 3%, от 50 до 60 лет — уже на 12,1%. И чем старше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группа, тем больше в ней женщин. В группе старше 65 лет на долю женщин приходилось 66,6%.

До ста лет и старше дожили 13 бабушек, 9 в городе и 4 на селе. Ожидаема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женщин значительно выше, чем мужчин: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для женщин составляет 75,5 года, для мужчин — 64,6 года.

Женщины наравне с мужчинами трудятся во всех сферах экономики. Самые женские виды деятельно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образование, гостиничный и ресторанный бизнес, финансов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коммунальных и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Численность женщин превышает численность мужчин в торговле, гостиничном и ресторанном бизнесе — в 1,7 раз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 в 5,7 раза, образовании — в 5,4 раза.

Женщи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нятые в экономике, опережают мужчин по уровню образования.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имеют 34% женщин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занятых и только 21% мужчин, средн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меют 30% женщин, а мужчин опять меньше — 24%. При этом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женщин составляет 61%, мужчин — 70%. Сред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безработных женщины составляют менее половины — 48,9%,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тат.

(8면에 계속)

한인 여성들에게 사랑스러운 축하와 공연, 즐거운 분위기 선사

지난 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사할린주 한인여성회(회장 김웨철)가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후원으로 명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행사는 사할린 한인 사회계 대표들의 축하 인사, 축하 공연과 다과회, 춤으로 이어졌다.

명절을 맞아 여성들에게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비롯해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사할린주한인협회 김홍지 고문, 사할린주두마취 유리 의원, 사할린한인비즈니스단체 천영곤 회장, <오스트로브>동양무술센터 안수학 관장, 장태호 시인 등이 축하하고 여성들의 아름다움, 모성, 배려와 사랑에 대해서 칭송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공연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마추어 가수들이 합동으로 부르는 사할린 아리랑으로 시작되었다.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 그룹은 K-팝의 음악에 맞춰 장구와 북을 치는 힘찬 포퍼먼스와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무용단들의 소고춤 <꽃밭>무용은 훌륭하고 아름다웠다. 특히 소고춤을 출 때 기술적 문제로 음악이 중단되어도 여학생들은 흐트러짐 없이 멋지게 무대를 마무리했다. 이날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은 관객들에게 <도라지>춤을 선보였고 동포 두엣 가수 강팔용·미야따 토시미는 한국 노래 몇 곡을 불러 관객들에게 흥을 돋우었다.



행사 사회를 맡은 사할린주 한인 여성회 김웨철 회장이 맛깔나게 부른 <동백아가씨>는 사할린 한인 여성들에게는 매우 친숙하고도 반가운 노래였다.

공연프로그램은 여성회와 주한인협회가 준비한 다과회와 춤으로 이어졌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 한인 특별법' 20대 국회 막바지 통과 기대감 '쑥쑥'

여야 합의로 영주귀국 확대·정착지원 등 명문화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17대 국회부터 표류 중이던 '사할린동포 특별법'이 최근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본회의 통과가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윤상현·전해철·김동철 국회의원이 사할린동포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해 그 대안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여야 반대 없이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의 법적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를 하게 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특별법은 다른 재외동포와의 형평성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그 대상자가 러시아 국적자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 탓에 그동안 외통위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윤상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공청회와 사할린 현장 조사를 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외교부도 전향적으로 법안 필요성을 인정해 외교부·복지부·행안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과 피해 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명예 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국내 영주귀국 대상 범위 확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특별법 수혜 대상자를 기존의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배우자만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 동반 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확대했다.

영주귀국 사업 범위는 귀국 항공과 초기 정착·거주·생활 시설 운영 비용과 임대 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국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 가족은 외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것도 명시했다.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대안을 반영한

법안으로 쟁점이 없기에 법사위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임시국회가 17일까지인데 선거법 등 우선 처리할 사안들이 많아 임시국회 만기인 17일까지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임시국회 후 4월 15일까지는 선거에 몰두하겠지만 이후 임기 만료인 5월 29일까지 45일의 기간이 있으므로 그 사이 열릴 국회서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외통위 차원의 법안이라 법사위에서는 법적 표현 정도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법안 처리를 제고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걸림돌이 될 요소가 없다"고 단언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돼 고통을 겪었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냉전체제가 지속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잊힌 존재였다. 이들은 1991년 러시아와 수교로 인해 한국 방문길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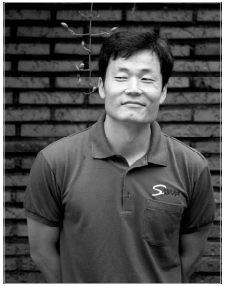
고국을 그리워하던 동포 1세대들은 한일 양국 적십자의 도움으로 영주귀국 길에 올랐으나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하다 보니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산의 아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주귀국자와 사할린에 남겨진 동포들은 그동안 특별법을 제정해 영주귀국 확대, 강제 동원 피해 등의 진상조사와 보상, 추모 사업을 계속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치며 사할린 한인 돕기에 앞장서 온 지구촌동포연대의 최상구 사무국장은 "여·야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외교부도 함께 검토해 마련한 법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동포사회에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며 "본회의를 통과해 사할린 한인의 오랜 바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2020년 3월 5일)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첫 경험



첫 경험을 잊지 않으면 삶이 풍성해진다. 다들 상상하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첫 경험이 있는데 그 중 처음 낚은 물고기를 잊을 수 없다.

열 살 때였다. 돼지우리 옆에서 지렁이를 파고 백 원짜리 빵을 두 봉지 산 다음 사촌형과 함께 버스를 타고 작은 저수지를 찾아갔다.

움직이는 찌를 노려보다가 형이 알려준 대로 짧은 낚싯대를 얼떨결에 낚아채자 부들부들 버티는 붕어가 느껴졌다. 나는 어렸고 붕어는 컸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가 겨우 붕어를 올리고 나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내 심장 소리를 나도 들을 수 있었다.

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함께 첫 물고기 낚을 순간을 기다렸다. 내 아이가 첫 붕어를 낚을 수 있게 꼭 도와주고 싶었다.

아이가 다섯 살 때 데려간 낚시는 실패였다. 넓은 들판 가운데를 흐르는 강가에 낚싯대를 퍼자마자 약속했던 초코 우유를 사달라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오 분 만에 철수한 낚시는 처음이었다.

열 살 때는 산 속으로 밤낚시를 갔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태풍이 지나간 뒤여서 밤하늘이 입김을 불어 닦은 유리창처럼 맑았다. 바람은 잔잔한데 낮게 깔려 흐르는 구름사이로 환한 달이 들락거렸다.

아이는 수풀속에서 날아오르는 반딧불에 정신이 팔렸다. 아이 낚시 바늘에 지렁이를 꿰어주고 찌가 이만큼 움직이면 낚아채라고 알려줬다. 물고기들이 아이를 놀리는지 지렁이만 따먹고 요리조리 바늘을 피했다.

나는 내 물고기에 집중했다. 경계심 많은 큰 물고기가 미끼를 건드리는 것 같았다. 오를 듯 말 듯 찌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아이가 나를 불렀다.

"아빠!"

아이의 손에는 혼자 낚은 물고기, 살면서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붕어가 파닥거리고 있었다.

그 뒤로 아이의 여러 첫 경험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프라모델 조립, 처음 자전거를 탄 순간, 첫 번째 비행기 여행 등등. 첫 번째 지리산 등산, 첫 번째 해외여행 등. 상상하기 싫지만 언젠가 오고야 말 첫 번째 반항도 남아 있다. 그 순간을 잘 보내면 언젠가 첫 번째 손주도 안겨 줄까? 생각할수록 빨리 만나보고 싶다. 내게도 첫 경험이 아직 남아 있다.

광주에서 김남중

각국 재외공관, '코로나19' 모국 돕기 나선 재외동포사회 지원

세계 곳곳의 동포사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모국 돕기 성금 모금 전개

각국 동포들이 기부한 방역물품 및 성금을 3월 20일까지 전달받아 대한적십자사에 보내기로

외교부는 "각국 재외동포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현지 재외공관에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재외공관망을 활용해 동포들의 모국 지원활동 의사를 적극 돕기로 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현재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의 동포사회에서 성금 모금 및 방역물품 기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각 재외공관은 관할지역 재외동포사회의 모국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물품 및 성금을 3월 20일까지 전달받아 대한적십자사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재외공관들은 방역물품이 전달되면 3월 20일이전이라도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송부하기로 했으며, 국제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외교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모국돕기 운동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지원해 온 재외동포사회의 나라 사랑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내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 дню писателя

3 марта в сте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состоялся традиционный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посвяще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писателя. В этом году героем встречи стал писатель, поэт и журналист Владимир Семенчик. На встречу с соратником по перу пришли мног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А Николай Тарасов, Анна Сафонова и Ирина Левитес вышли к микрофону, чтобы рассказать об общих с Владимиром Семенчиком жизн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а также высказать мнение о восприятии его творчества.

Кроме писателей, на творческом вечере была Татьяна Федорова, которая поделилась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о знакомстве с Владимиром Семенчиком в годы е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временем прохождения журналистской практики на Сахалине. По словам самого Владимира Семенчика, остров стал его источником вдохновения и уже больше не отпускал его.

Свое мнение о поэзии и прозе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высказали и гости из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профессор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студентки-третьекурсницы Александра Малеева и Александра Черкасов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редактора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иктории Бя. Она рассказала о том, что кроме пис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ладимир Семенчик преуспел и в переводах. Благодаря ему в 2013 году была адаптирована для русских читателей книга стихов поэт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Ли Чон Хи «Еду в Пушкин навстречу Новому году». Книга вышла на двух языках. И, вероятно, что это издание – первое двуязычное изда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нового столетия.

Владимир Семенчик поделился, что работать над переводом было важно, а личная встреча с корейским поэтом только укрепила переводчика в выбранном материале. Знакомство с Ли Чон Хи, долгое время работавшем директором одной из корейских школ, стало продуктивным: переводы из его книги публиковались в разных российских журналах. Творческий союз Владимира Семенчика и Ли Чон Хи позволил островитянам прикоснуться к современной поэзии Южной Кореи и больше узнать о культуре близкой нам страны.

На встрече Владимир Семенчик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их мечтах и планах: в перспективе ему хочется когда-нибудь посетить Латинскую Америку, 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писать цикл небольших житейских историй с примерным названием «Рассказы на час». И один из таких рассказов, в котором ожидания становятся реальностью, был прочитан вслух со смартфона. И хотя забавный случай из короткой зарисовки Владимира Семенчика происходит где-то в российской глубинке, однако в своих мечтах герои писателя устремляются на остров Гаити, в далекую Доминикану.

В завершении празднич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о стороны гостей прозвучали вопросы и пожелания дальнейших успехов.

Для справки: Сегодня в соста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входят 17 писателей и поэтов. Ежемесячн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оходят заседания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Лира», формирующего литературный актив из числа любящих слово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Александра Морозова

12 слов, позволяющих понять культуру Кореи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значит слово «доширак»? Правда ли, что в день местного ЕГЭ закрывают аэропорты? Зачем молодые кореянки кривляются и сюсюкают? Почему корейцы ничего не скажут прямо, а плохие новости сообщают вечером? И с чего это кореец называет свою жену «нашей»?

Автор Мария Рязанов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8)

В корейском искусстве хан и связанные с ним страдания становятся источником нравственного очищения, катарсиса. Яркий пример хан в искусстве — жанр народной музыки пхансори, песенный сказ, в котором обычно говорится о бедных и угнетенных. Принцип хан также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ил развитие литературы и кин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Широко известна цитата из выступления писательницы Пак Кённи, классик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о том, что хан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печаль, но вместе с тем и надежда: «Печалью пронизаны наши попытки принять те противоречия,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все живые существа; но наше желание преодолеть эти противоречия исполнено надежды. В настоящем мы принимаем их; в будущем мы их преодолеем». Хан — самая суть жизни, в которой есть страдание, войны, голод, смерть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дежда на лучшее.

6. Ури 우리

Мы, наш; мой, если речь идет о членах семьи, доме, коллективе, стране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Вскор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 Wu Chang Family Archive

Это местоимение, имеющее, казалось бы, простое и однозначное значение, нередко вызывает трудности и недоумение у иностранца, изучающего корейский: запомнив его как «мы» или «наш», он вскоре замечает, что оно постоян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ситуациях, где уместнее (по мнению иностранца) было бы местоимение «мой». Корейцы не скажут «моя страна», «моя семья», «моя компания», «моя школа» — в этих и других подобных словосочетаниях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сказано «наша» (даже если собеседник не является земляком, родственником, коллегой или одноклассником говорящего). Корни этой языковой нормы — в коллективистск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йцев, в гораздо большей, чем на Западе, потребности ощущать сво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сообществу, к определенной группе. Отсюда любовь корейцев к всевозможным собраниям, клубам по интересам, землячествам и ассоциациям. Оказавшись вне коллектива,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реец ощущает себя крайне неудобно. Яркий пример: до совсем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было не принято обедать в столовой или ресторане в одиночестве, без компании, поскольку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ест один,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странным, неблагополучным, неустроенным. Таким образом, ури — не простое «мы», а обознач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общности; «наш» вместо «мой» — не просто языковая особенность, а сущность корейской коллектив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Корейцы говорят «ури», когда что-то принадлежит одновременно целой группе людей («наш дом», «наш отец», «наш начальник») или речь идет о том, что есть у многих членов этой группы. Иностранцу особенно трудно принять такие выражения, как «наша жена» или «наш муж», однако сказать «моя жена» — значит показать себя индивидуалистом, подчеркнуто отделив себя от семьи и рода; ури же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напротив, отразит прочность внутрисемейных связей. Чувству причастности к ури обязательно сопутствует эмоция чон: восприятие «мы» как единого целого и ощущение растущей взаимной привязанности подтверждают и усил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7. Эгё 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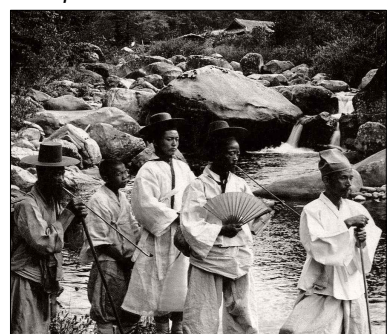
Искусство быть по-детски милой

Один из ярких символо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поп-культуры, широко тиражируемых в клипах исполнительниц К-попа, сериалах и инстаграм-блогах звезд. Эгё — это умение быть по-детски очаровательной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трогательной и кокетливой одновременно. Достичь этого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природного эгё) можно с помощью ряда приемов: протяжно произносить гласные в конце слов (особенно обращаясь к молодому человеку и прося его о чем-то); добавля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огласные к окончаниям фраз или мило или коверкать на детский манер, делая звучание более нежным; говорить более высоким и эмоциональным тоном; сопровождать речь характерными жестами, телодвижениями, мимикой. Образцом поведения в стиле эгё считается клип «Gee» группы Girls' Generation. Известная корейская привычка показывать сердечки с помощью пальцев или рук также отголосок культуры эгё, и этой традицией порой не пренебрегают даж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лица, позируя для коллективных фото вполне офици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ультура эгё может проявляться в одежде, аксессуарах, интерьере, дизайне упаковки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 в этом случае все это вызывает умиление и детский восторг. Конечно, чрезмерное старание быть милой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нарочитым и вызвать отторжение, и сами корейцы обоих полов нередко иронизируют на тему эгё, однако такой стиль поведения остается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 среди юных корейцев (особенно при общени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ужского пола, когда нужно добиться от них желаемого).

8. Тынсан 등산

Пешие прогулки по горам

Корея — страна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горно-холмистая. Практически в любом городе или рядом с ним имеется живописный горный парк, а потому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видов досуга среди людей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является тынсан — прогулки в горах. «Альпинизм» и «горные походы» не очень точно переводят это слово, поскольку корейские горы в основном невысоки, комфортны для умеренно долгих прогулок и оборудованы указателями, лестницами, перилами в опасных местах, туалетами и кафе. В горы идут семьями, включая совсем маленьких детей, студенче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рабочи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иностранца обязательно привлечет компании молодых или даже очень пожил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бодро обгонят его в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он начнет замедлять шаг от усталости. Как правило, туристы одеты в специальную одежду для тынсан — куртки-ветровки и кепки от солнца кислотных оттенков салатного, оранжевого или фуксии. В стране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клубов любителей горных прогулок, и в погожий выходной день в горах по-настоящему многолюдно и весел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ысшего класса на прогулке в горах. Сеул, около 1900 года
historymap.blogspot.com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Источник: <https://arzamas.academy/mag/787-korea>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будут открыты центры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больным с симптомами COVID-19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РК будут открыты экстренные центры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больным с симптомами COVID-19, находящимся в тяжёлом состоян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1 марта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Данные меры приняты в связи с отказом некоторых центров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ринимать таких больных в связи с опасениям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В новых экстренных центрах будут созданы карантинные зоны на пять и более койко-мест, в которых должны быть созданы места для карантина, помещения для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и зона лечения тяжёлых пациентов. У входа также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пункты определения наличия вируса в организме и степени тяжести симптомов заболевания. Как минимум два подобных центра должны быть открыты в каждом городе или провинции на базе местных служб скорой помощи пр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их работы и закупки оборудования власти выделяют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90 сотрудников колл-центра в Сеуле заразились коронавирусом COVID-19

Количество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COVID-19 из числа сотрудников колл-центра, находящегося в районе Силлим-дон сеуль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Куро-гу,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составляет 90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1 марта мэр Сеула Пак Вон Сун в интервью радио CBS.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1 марта, среди заболевших 62 человек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в Сеуле, 13 -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15 - в Инчхон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это крупнейший очаг заболевания в Сеуле, — отмечает градоначальник. Колл-центр, где произошло массовое заражение COVID-19, находится на 11-м этаже здания Kogea Building. Штат сотрудников составляет 207 человек.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здании работают 550 человек,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ых проводится проверка на наличие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ходе проверки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два сотрудника колл-центра связаны с религиоз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инчхончжи. Анализы показали, что данные граждане не заражены коронавирусом COVID-19.

В США принят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воссоединении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КНДР

Законо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то, чтобы помочь америка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оссоединиться с их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инят в понедельник Палато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нгресса США. Его инициатор — демократ Грейс Мэн. В поддержку документа был отдан 391 голос, 39 депутатов воздержались. Как только документ обретёт силу закона, госдепартамент должен будет обсудить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вопрос о включении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писок участников будущих встреч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До сих пор они н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таких встречах.

КНДР поместила в карантин около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я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МИ, в карантин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были помещены около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подозрению в заражении вирусом COVID-19. Около 40% из них отпущены, поскольку у них не выявлено никаких симптомов. КНДР не сообщала о подтверждённых случаях COVID-19, но ввела жёстки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закрыв границы. Центральн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сообщила 9 марта об отмене карантина для тех, кто находился в контакте с прибывшим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В сообщении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карантин отмен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уководящими принципам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Пхеньян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переводчиков и в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относятся к группе особого риска.

Цветение вишни в РК начнётся 20-21 марта

Цветение вишни нынешней весной начнётся 20-21 мар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частной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KWeather, в этом году, как и ранее, цветение начнётся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В южных регионах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вишня начнёт цвести после 22 марта, в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ах - в конце марта или начале апреля. В этом году цветение вишни начнётся на 3-9 дней раньше, чем в прежние годы. В Пусане этот знак весны можно будет увидеть 22 марта, в Тэгу - 23, в Тэчжоне - 28 марта, а в Сеуле 2 апреля. Цветки вишни распустятся раньше обычного в связи с более высокой температурой. (RKI)

Почему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т уличн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Журнал КИМ)

Когда меня спрашивают о том, чт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лица, я обычно отвечаю: «Сеул — город очень большой. И безопасны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еул — это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мегаполисов мира, в которых и местный житель, и иностранец чувствуют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любое время дня и ночи, хотя население сеуль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составляет 24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Хозяин антикварной лавки отлучился, «закрыв» дверь забавным способом.

Будет лишь небольшим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сказать, что уличная и насильстве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в Корее практически отсутствует. Многие корейские привычки повергают иностранцев в полное изумление: вполне нормально, например, когда машину на стоянке отдают — вместе с ключами — первому попавшемуся незнакомцу,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ся администратором данной стоянки. Угон машин — преступление в Корее малоизвестное. Хозяйка лавки где-нибудь в глубине квартала вполне может выйти на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оставив предприятие открытым (все свои — ничего не будет), а портфели и чемоданы корейцы спокойно бросают без особого присмотра.

Помнится, лет 15 назад в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е промелькнуло сообщение о любопытной и типичной истории. В одной строительной фирме сотрудницу отравили отвезти подрядчику деньги — что-то около миллиарда вон (примерно миллион долларов) в чеках на предьявителя. Барышня сунула деньги в сумку, села в метро, поставила сумку на полку над собой и открыла книжку. На нужной остановке она вышла, благополучно забыв сумочку в вагоне. Опомившись, обратилась в полицию, и патруль, спешно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одну из следующих станций, нашел сумочку там, где ее оставила хозяйка. Начальство барышни отправило ее фактически с миллионом долларов в кармане и не испытывало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ни малейшего беспокойства. Другая история случилась с коллегой моего бывшего студента, который тогда работал переводчиком в корейской фирме. Сотруднику фирмы было поручено отвезти конверт с 10 млн вон — примерно \$10 тысяч. Сотрудник, садясь в машину, положил папку с конвертом на крышу и забыл ее там. Деньги нашел рабочий местного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го комбината. Поскольку на конверте стояла

печать организации, отыскать владельца денег для рабочего оказалось несложным, так что потерянный конверт был возвращен в бухгалтерию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Сама по себе история никакого удивления у ее корейских участников не вызвала — корейцам кажется вполне естественным, что, найдя на улице конверт с немалой суммой, человек, конечно же, постарается вернуть деньги владельцу.

Статистик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печатление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вовсе не обманчиво. На 100 тысяч жителей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ходится 2,6 убийства в год — в два с лишним раза меньше, чем в США, и в четыре раза меньше, чем в России. Особенно разителен контраст по убийствам с применением огнестрельного оружия. Таки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 Корее происходит лишь 0,04 на 100 тысяч жителей в год. Если учесть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Кореи, то это означает примерно 20 убийств с применением огнестрельного оружия В ГОД на всю страну, население которой составляет почти 50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 треть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Это примерно в 160 раз ниже, чем в США. Добавим, что в Корее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воруют, не обсчитывают и вообще редко позволяют себ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еопытностью иностранца или приезжего.

Еще более примечательной выглядит эта ситуация, если учесть почти полное отсутствие полиции на улицах корейских городов. По статистике, в Корее на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иходится 200 полицейских —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же, сколько в Японии, но в полтора раза меньше, чем во Франции. При этом реальная цифра — заметно ниже, так как в статистику включены части «боевой полиции», в которой служат солдаты-срочники: их задача — охр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ов.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льзя считать, что корейцы совсем уж законопослушны. Мошенничества и всякие пирамиды в Корее вполне известны. Откаты, распилы и прочие попытки залезть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юджет в мире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тоже являются вполне знакомым явлением. Некоторое табу наложе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преступность уличную и насильственную.

В чем причина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кстати, очень похожей на ситуацию в Японии, — стране, которую сами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не любят, но которая при этом очень близка Кореи? Как ни странно, серьез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священных этому вопросу, очень мало. Рискну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дело тут отчасти в самоцензуре — честное изучение причин отсутствия преступности в Корее или Японии,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иведет к весьма неполицейскому выводу, открыто озвучивать которые западный криминолог либерально-прогрессивных взглядов может и не решиться. Поэтому в условиях неловкого молча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рискну высказать свои дилетантские наблюдения, которые основаны на почти четвертьвековом опыте жизни в Корее и самых разных странах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а.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ёные получили белок, определяющий антитела к COVID-19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успешно получили белок, необходимый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антител к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COVID-19. Об этом во вторни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институт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овый белок получил название Probe. По слов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теперь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обнаружение клеток, продуцирующих нейтрализующие антитела к вирусу в организме выздоровевших пациентов, что в итоге позволит выделить антитела к COVID-19. В дальнейших планах провести оценку свойств данно-

го белка, — сообщают учёные. Между тем, специалист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над получением вакцины против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ширить бюджет, после чего приступить к разработке животной модели и плазменной вакцины. По сообщ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прос созда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ирусных и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 принял Эстафету Победы

Символ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ции прибыл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из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ередачи капсулы состоялась 10 марта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сотрудники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л мероприя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22 апреля мы будем голосовать за изменения в Конституцию. В одной из поправок говорится о незыблемости границ России. Эстафета Победы – важное напоминание о том, что мы всегда будем защищать рубежи нашей страны. Вдвойне символично, что эт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кция проходит именно на нашей земле, где заверши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Эстафета Победы стартовала 5 февраля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Бресте и Мурманске. Она проходит сразу по двум маршрутам вдо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раниц России и внешних рубежей Белору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Таджики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Азербайджана, Армени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и Киргизии. Побы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на местах наиболее ожесточенных боё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ротяженность пути – почти 70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В ходе эстафеты в городах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торжественные собрания, митинги и уроки муже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имвол акции – миниатюрный пограничный столб – прибыл, пройдя по северному пути из Мурманска через Москву, Анадырь и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 Сегодня мы принимаем Эстафету Победы от пограничников восточного арктического района, как символ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ерушимой и неделимой границы. Выражаем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символ Победы мы достойно пронесем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 подчеркнул начальник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у Сергею Кудряшову.

11 марта Эстафету Победы примут в Невельске, после – в Холмске, Корсакове и Озерском. А 15 марта она верне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дня на символ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ции с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посетители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 Не сомневаюсь, в минуту опасности военные сделают всё для того, чтобы защитить нашу великую родину. Желаю, чтобы эстафета, которая идет вдоль границ великой России, оправдала своё предназначение. Да здравствует наша армия, – заявил ветера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иколай Сандлер.

16 марта символ Победы отправит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Заверш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кция 28 мая в Москве на Поклонной горе.

На старт лыжного марафона памя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впервые вышел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Для участия в гонке на остров прибыл победитель и призёр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трёх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мира Никита Крюков. Сегодня титулованный спортсмен испытал силы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лыжне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атлетами из России, Австралии, Нидерландов и Норвеги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XX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собрал более 600 любителей беговых лыж.

– На Сахалине замечательная погода. Желаю всем быстрых лыж и попутного ветра. Получайте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марафона, наслаждайтесь каждым метром пройденной дистанции. Удачи! – обратился перед стартом к любителям лыж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Накануне Никита Крюков провел мастер-класс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островной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А сегодня вышел на марафонскую дистанцию,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спринте. К напутствиям именитого лыжника присоединилс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Наумов.

–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ы с именем бывш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лас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 большого любителя лыжных гонок. Он заложил на Сахалине мощные спортивные традиции и сегодня марафон его памяти стал одной из визитных карточек региона. Гонка привлекает внимание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ахалинцев и именитых гостей, в том числе Олимпийских чемпионов. В свою очередь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орячо поддерживает эту традицию.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и от себя лично желаю спортивных побед и удачи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марафона! – сказал зампред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портсмены преодолели две дистанции: 30 и 50 километров. Старт гонке был дан в селе Лесном. Лыжня пролегла вдоль моря, через лес и перевал. Местом финиша стала территория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Лыжники боролись за награды в семи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18-30 лет, 31-40, 41-45, 45-50, 51-55, 56-60, 61-65, а также 66 лет и старше.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на 50-километровой дистанции в общем зачёте показал южносахалинец Иван Кустов.

Второй результат показал хабаровчанин Дмитрий Дербин, уступив сахалинцу чуть более секунды. Третью строчку пьедестала занял москвич Иван Кириллов, член сборной страны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Четвёртое место досталось Дмитрию Каркину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ятое – представителю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Михаилу Соснину.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Никита Крюков пришел к финишу восьмым.

Четыре из пяти призовых мест среди женщин заняли жительн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ервой стала Марина Черноусова, второй – Наталья Смирнова, третьей – Дарья Шацких. Четвёрт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Мария Муратова. Пятой стала жительница Хабаровска Надежда Кузнецова.

Первым пятёркам финишировавших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вручили денеж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в размере от 20 до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тридцатикилометровой дистанции золото в общем зачёте взял южносахалинец Александр Яблочников. Вторым пришел Андрей Гринштейн, такж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замкнул его земляк Пётр Иванцов.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среди женщин показа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талья Константинова, второе место у другой спортсменки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атьяны Борсаковой, третье – у Елены Юмаевой из Смирных.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стали Наталья Смирнова, Марина Черноусова, Марина Загрудняк, Наталья Львова, Виктория Бахромеева, Елена Кочегарова, Любовь Акишина, Зинаида Базанова, Иван Кириллов, Иван Кустов, Константин Удатов, Азат Батретдинов, Андрей Емельянов, Евгений Мишин, Николай Поляков, Владимир Скуднневский, Вячеслав Агапов, Татьяна Четырина, Олеся Заболотская, Олеся Юрченко, Татьяна Борсакова, Наталья Константинова, Елена Полякова, Татьяна Лобанова, Любовь Яхович, Андрей Гринштейн, Александр Яблочников, Сергей Ивочкин, Константин Цымбал, Сергей Белозеров, Александр Зотов, Виктор Медведев и Анатолий Мартыненко.

Отметим,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 стартом основной лыжной гонки в селе Лесное стартовал ежегодный детский марафон на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ебята в возрасте 8-10 лет бежали километр, а спортсмены в возрасте 11-17 лет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пятикилометровую трассу.

XX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лыжный марафон, посвященный памя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прошёл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лавного спонсора мероприятия – Сахалинского ЛПУМТ ООО «Газпром трансгаз Томск».

На золотую свадьбу островитянам будут вручать памятный знак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юз женщин России». В мероприят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встрече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сак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Елена Костицына заявила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которым удается сохранять теплые отношен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 Я считаю, ч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прожили всю жизнь вместе, могли бы поделиться с нами своим бесценным опытом. Кроме того, таким людям обязательно нужно уделять внимание, поскольку они вносят особый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традиций и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 заявила Елена Костицына.

В частности, островитянам, которые прожили в браке более 50 лет, предложили вручать памятный знак и направлять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денежную выплату.

–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ы уже начали.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в област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дготовлены. Тепер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законопроект должен пройти обсуждение в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Вероятнее всего, памятные знаки мы начнем вручать сахалинским и курильским семьям уже в этом году, – рассказала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Елены Касьянова.

Также собравшиеся обсудили решение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 област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льгот инвалидам и пути решения жилищного вопроса, который встает перед молодыми семьями региона.

– Безусловно, нам нужно продолжать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повышение благополучия островитян. В этом плане особую роль будут играть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вносятся в Конституцию Росси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социальной тематике,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 Предлагается закрепить в основном законе регулярную индексацию пенсий, пособий и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выстраивать политику по повышению доходов людей. Необходимо разъяснять людям значение всех этих изменений и важность личного участия в референдуме.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вы также уделите внимание этому вопросу.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ышла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поддержки жителей, который осталь-

ным регионам страны пока не по сила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островах уделяют женщинам. Так,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нововведений этого года –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енца в регионе решено выплачивать всем семьям по 150 тысяч рублей. Ранее такую поддержку получали только женщины, которые стали мамами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25 лет.

Также с этого года для семей с двумя детьми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увеличен до 250 тысяч рублей – ранее выплата составляла чуть более 200 тысяч. Кроме того, действие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продлили до 2026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оказывается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на погашение ипотечного кредита. Он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займы от Сахалинского ипотечного агентства. Теперь эту практику решено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и на коммерческие банки. При появлении на свет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сумма долга уменьшается на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второго –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третье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смогут семьи, которые живу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е менее 10 лет и которы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рождение малыша после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Островные семьи, которые воспитывают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3 лет, не посещающих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олучают ежемесячное пособие. Размер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 более 14,5 тысяч рублей.

Всег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ют более 50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вели термометрический контроль на внутренних рейсах

7 марта началась проверка тепловизором всех пассажиров, прибывающих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Ранее такой контроль действовал тольк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ейсах – для людей, вернувшихся из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 небезопасных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Тепловизор установлен в зоне прилета. Аппара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определяет повышенную температуру тела. В случае поступления сигнала человек направляется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осмотр. Сегодня зафиксировано несколько таких случаев, все они вызваны неправильным прохождением процедуры.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осмотр не выявил у пассажиров опасных симптомов.

– Ежедневно в аэропорту будет дежурить медицинская бригада. Если она выявит пассажира с признаками заболевания, меры прим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лечеб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Мила Тен.

Пассажиры, прилетевшие из стран с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случаям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с признаками заболевания, буду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направляться в инфекционное отделение. Тех, кто прибыл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 симптомами болезни, поместят на домашний карантин. Данные этих людей будут передаваться в поликлинику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лечения на дом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существляет усиленные меры по недопу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Регион стал первы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рганизовавшим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учения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опас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Усиленные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Сахалине намерены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ложные сообщения о терактах

Этот вопрос стал одним из обсуждаемых на заседании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овещ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ведомст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сегодня развернута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кампания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идеологии терроризма. В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регулярно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негативных последствиях деятельности экстремистских 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искутируются радикальные идеологии, движения и субкультуры, пропагандирующие насилие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Вместе с тем, большую проблему представляют заведомо ложные сообщения 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ктах, особенно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Это наносит, прежде вс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ущерб.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в России и в том числе на Сахали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десятки таких случаев.

– Массовые рассылки сообщений в адрес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им учреждений существенно дестабилизируют работу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ей 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найти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негатив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от этих противоправных действий,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выработа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о защите населения от ложных сообщений об актах терроризм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동포 사는 고령 대창양로원... 확진자 없지만 방역 긴장

외부인 방문 엄격 통제, 자원봉사자·후원자 방문도 제한
"고혈압 등 기저질환 어르신 많아 걱정"...
면역력 높이는 식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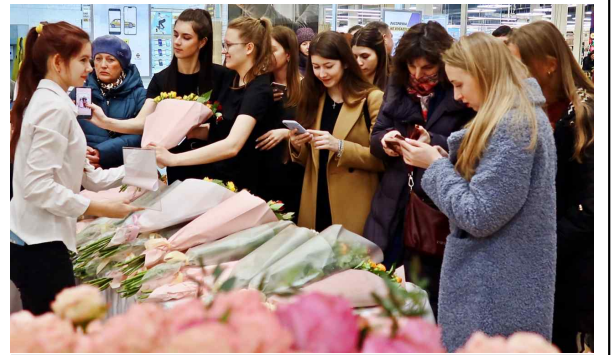
(고령=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있는 대창양로원.
사할린에서 귀국한 동포들과 일반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시설이다.
이곳에는 사할린 귀국 동포 9명을 포함해 평균 연령 88세의 어르신 65명이 거주하고 있다.
1994년 45명을 시작으로 몇 차례에 걸쳐 귀국자가 줄을 이어 한때는 사할린 귀국 동포가 100여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모두 초고령 어르신들이라 양로원 측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고령군에 최근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더 뒤숭숭한 분위기다.
양로원 측은 지난달 중순부터 외부인들의 방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가족 면회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피치 못할 경우에 한 해 양로원 1층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10분 정도만 가족들이 어르신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양로원 입구에서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철저히 시행한다.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들의 방문도 통제하고 있고 양로원 직원 14명도 개인위생 준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양로원 소속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2명이 양로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일 수시로 발열 체크 등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조리사들은 영양 식단을 비롯해 각종 과일, 생강차, 유자차 등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준비한다.
고령군 보건소도 사할린에 한 번씩 양로원을 찾아 건물 안팎을 소독 방역하고 있다.
배상우 양로원 사무국장은 "고혈압, 통증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많아 더욱 신경이 쓰인다"며 "실내에 오래 머물러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 등 어르신들 정신적인 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인-북한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 하원 통과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이 한 걸음 더 현실로 다가왔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3월5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H.R. 1771)'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2019년 3월 그레이스 맵 의원(민주, 뉴욕 6 지역구)과 랫 우달 의원(공화, 조지아 7 지역구)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미국무부가 한국계 미 국적자들이 북한에 있는 친인척과 상봉하는 것을 돕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또 미국무부에 2017년 1월 이후 공식인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고,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53년 남북 휴전협정 이후, 미주 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 사이에는 공식적인 소통의 경로가 없었다.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동안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기에 참가 자격에서 제외됐다.
하원 표결과정을 지켜본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지난 2011년부터 KAGC가 연방의회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해왔지만, 결의안이 아닌 실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다행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공략해야 하는 큰 산이 남아있다. 현실적으로 상원의 다수인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야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드코리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K-Flower 소비자 체험행사'



지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대형쇼핑몰에서 'K-Flower 소비자 체험행사'가 열렸다. [사진제공=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지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형쇼핑몰에서 'K-Flower 소비자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UN에서 여성 인권신장과 양성평등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 이날은 러시아에서 연중 최대 화훼 소비시즌 중 하나다. aT는 러시아 국기기념일로 세계 여성의 날에 현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장미와 부케 나눠주기, 쇼핑센터 내 K-Flower 포토존 설치, SNS 해시태그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네덜란드 등 47개국으로부터 5억4,491만 달러(약 6천 5백억 원) 규모의 화훼를 수입할 만큼 꽃 소비가 일상화된 곳이다. 하지만 한국산 화훼의 러시아지역 수출은 2014년 러시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중단됐다. 신현근 aT 식품수출이사는 "올해 개최예정인 한류 문화 복합행사 K-Food FAIR 등을 통해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월드코리아)

유전자 증폭 검사 거쳐 6시간 내 '감염 판정'...

"세계 최고"라는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현장 가보니



에 지난 2일 방문해 진단검사 전 과정을 함께했다.
메르스사태 당시 검사기관 2곳뿐
113곳으로 늘려 시스템 미리 구축
하루 최대 1만5000건까지 가능해
초기 확진 통한 감염 차단에 큰 공
매일 오전 9시와 낮 12시 두 차례 코로나19 검체가 들어온다. 검체는 삼중 포장에 돼 있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거의 없지만, 비닐 방호가운과 고글·장갑을 낀 임상병리사가 별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음압 실험실까지 운반한다. 삼중 포장을 벗기면 의심환자에게서 채취한 콧물·가래(검체) 등이 묻어 있는 면봉이 액체에 담긴 채 들어 있다. 감염된 사람의 검체라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것이다.
검사 원리는 간단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물질(핵산)을 분리하고, 이를 많은 수로 증폭시켜서 기계가 감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음압실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긴 핵산을 분리한다. 분리된 핵산에 특정 유전자에만 달라붙어서 코로나바이러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지표(프라이머)를 붙이고, 유전자 증폭을 하는 과정(PCR)을 거친다. 총 6시간이 걸리는 이전 과정을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eal Time RT-PCR)'라고 부른다. 조성임 임상병리사는 "서서히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면 양성이고, 증가하지 않으면 음성"이라면서 "만약 그래프가 증감을 반복하거나 후반부에 갑자기 수치가 치솟으면 검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체 채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문우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이런 속도와 규모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겪으면서 드러난 취약점을 토대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은 덕이 컸다. 성 교수는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 국내에서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서울대병원뿐이었다"며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질본과 진단검사 관련 학회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질본은 감염병분석센터를 만들었고, 진단검사학회는 해외 연구소의 검사기법들을 수시로 살피면서 센터와 정보를 공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년 정도 걸리는 검사법 승인을 단 며칠로 단축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만들었다.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1월17일에 이미 질본과 대한진단검사학회회는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열어 최적의 검사법을 논의한 후 이를 진단키트 생산업체와도 공유했다. 그 덕분에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2주가량 후 식약처의 사용 승인을 받은 첫 진단키트가 나왔다. 현재 국내의 진단키트는 총 4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학회는 양질의 진단검사가 가능한 기관 150곳을 인증해 관리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현황 단위: 명

확진자(전일 대비)	퇴원	사망
7478(+165)	166	54
※9일 오후 4시 기준 자료:질병관리본부		

송상훈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국내에는 약 1200명의 진단검사 전문의 인력풀이 정립돼 있다"면서 "(세계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기술은) 일찌감치 진단검사 분야를 의학의 한 분야로 독립시켜 기술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사할린 청소년들을 전 러시아 대회에 초청

<1941년-1945년 대조국전쟁에서 나의 가족>창작 활동> 경연대회가 대조국전쟁 소비에트 국민의 승리 75주년 기념을 앞두고 조성되었다고 사할린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참가자는 14세-18세의 학생들을 초대하며 도전자들에게 다음의 주제들 중 하나의 과제를 이루길 제안한다.

<나는 전장의 사진을 본다> - 이 부문에서는 별도의 사진이나 사진이 생겨난 이야기, 사진 촬영 당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요한다.

<가족의 유물인 전쟁의 기념품> - 과거 전투기를 다루며 전쟁에 임했던 또는 전투에 참전했던 참전자들이 전장에서 보내거나 운반한 특별 물품의 기록 설명.

<국가의 역사 속에 가족의 운명> - 대조국 전쟁시절 가족의 비밀 자료나 추억할 만한 가족 역사에 대한 포괄적 탐구.
<전투장에서 온 삼각형의 편지>

- 가족이 보관한 자료, 편지, 엽서, 개인 일기장, 사진 연구에 대한 설명.

2020년4월6까지 경연 참가 서류는 E-메일 (pochtapobeda75@mail.ru)을 통해 접수한다.

이 행사는 연방위원회 청년입법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주최 측은 이 행사가 가족 세대 간 소통을 공고히 하고 현대 시민들의 글쓰기 문화를 향상시키며 창작력 발전을 촉진할 거라 전망하고 있다.

경연 진행 기간과 규정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xn--glajikp.xn--plai/news/vserossiyskiy-konkurs.html>)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Конкурс «Творческая работа «Моя семья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одов» организован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ования 75-летия Победы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сообщили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ся школьники 14-18 лет. Претендентам предлагается выполнить работу на одну из тем:

«Я смотрю на фронтовую фотографию» —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анализ отдель-

ной фотографии, истории ее появления, судьбы людей в тот период, когда был сделан снимок;

«Семейные реликвии — военные трофеи» — описание отдельной вещи, привезенной или присланной с фронта участником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ли прошедшей с бойцом его военный путь;

«Судьба семьи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 комплекс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мьи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о семейным архивам и воспоминаниям;

«Треугольники с войны» — исследование семейного архива, писем, почтовых открыток, личных дневников, фотографий.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на конкурс ведется до 6 апреля 2020 года по электронному адресу: pochtapobeda75@mail.ru.

Инициатором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выступила палата молодых законодателей при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рассчитывают, что мероприяти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изучению истории семьи, укреплению связей между поколениями, развитию твор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и повышению культуры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совреме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авилах и сроках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размещены на [сайте проект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читает невозможным ост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от случившейся бед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в качестве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данную чрезвычайную ситуацию, объявляет сбор средств для помощи в борьбе с эпи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Все желающие внести свой посильный вклад могут направлять свои средства :

1.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РООСКа:

Банковские реквизиты:

ИНН 6501015979

Р/с 40703810950340109084

БИК 040813608

К/с30101810600000000608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банк ПАО

«Сбербанк» г. Хабаровск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Гуманитарная помощь для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РК

2. Урна для пожертвования находится в здании ККЦ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т Мира, 83а.

Сбор средств до 20 марта 2020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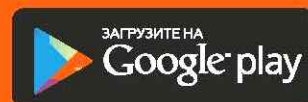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